

## 제 9강 제국의 특성

### ◆1교시: 주권 이행의 정치, 군사, 문화적 결과

#### ▲삶과 주권

전쟁 대신에 인제 삶의 관점에서 그 현상을 역전시켜서 보면서 제국 개념을 조금 더 구체화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권보다는 삶이 더 크고 근본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제국주의에서 제국으로의 이행을 삶을 빼놓고 설명을 해 버리면 마치 주권이 자기운동을 해나가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제국현상을 외부에서 이렇게 관찰할 수는 있죠. ‘아~ 저기 저게 요렇게 됐네. 전쟁이란게 옛날에 요런 모양이었다가 요렇게 됐어.’라고 설명하고 그렇게 끝내자 - 그걸로도 많은게 설명됐다고 오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인식론적 방식, 존재론적 방식이 아니고 대상을 설정하고 대상에 대해서 뭔가 알면 그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그죠? 근데 그것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 못하면 그건 반쪽 자리밖에 안 나와요. 사실상.

그래서 이 삶의 문제를 우리는 주권에 대한 설명의 인제 그... 아주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요소로 일단 가져와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지금 그게 인제 이 제국주의의 한계와 위기라는 말에서 한계라는 말이 갖는 의미. 한계 - 음... 우리가 한계 그러면 뭔가 대상이 있으면 경계 지워지는 그거잖아요? 그럼 이 경계를 만약 짓지 못한다면 이게 전부 없는거니까 이게 그냥 완전한 하나죠. 주권이라고 하는게 전일화된 일자가 되는 거죠. 근데 경계가 지워진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여기에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압력이 지금 우리가 요 삶이라고 부르는 것의 힘이었다.

#### ▲17혁명

그러면 이걸 역사적으로 입증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국주의론을 설명하면서 1917년 혁명이 제국주의적 주권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영향과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 했잖아요. 그니까 압축적으로 얘길 하면은 바로 미숙련, 반숙련, 숙련으로 돼 있는 노동계급의 층들 중에서 17혁명이라 하는 건 노동자 숙련층들의 자기 조직이었고, 이 부분이 반숙련과 미숙련, 반숙련을 매개로 해서 미숙련을 동원하는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로 숙련 노동자를 파괴하기 위하여, 테일러주의와 포드주의를 도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테일러주의는 숙련을 기계적 과정으로 전환시켜 버린다. 그럼으로써 숙련노동자가 사라지게 되고 대중노동자로의 전환이 있었다. 그래서 이전의 계급구성방식, 조직구성논리가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되었고, 바로 그러한 변화에 상응하는 노력들이 (이 얘기는 지난시간에 충분히 못했던 거 같은데) 유럽의 사회당, 공산당들의 대중노동당으로의 변화로 나타난다. 예전에는 뱅가드당(Vanguard Party)들이 전위당이었지 않습니까? 레닌이 주장했던 전위당이었죠. 뱅가더, 선진노동자, 숙련노동자, 상층노동자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 레닌이 이야기 하는 전위당의 구성원들은 직업혁명가들이었어야 됐거든요. 프로페셔널(Professional)한 사람들. 직업혁명가. Professional Revolutionary. Professional Worker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전문 노동자. 전문 노동자를 이끄는게 바로 전문 혁명가들이죠. 전문 혁명가들의 조직

이 전위당이었습니다. 혁명 자체를 직업으로 가져야지 딴 거 하면서 하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 ▲당과 대중 - 레닌

Professional Worker가 블레어주의에까지 이르르게 되는 이 변신을 겪는게 바로 17년 혁명 이후였다는 것인데... 이때 바로 인제 유럽당들은 전문혁명가로부터 충원되는게 아니고 바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노동자라거나 농민이라거나 이런 사람들로 부터 충원되는 방식을 택했어요. 이때(Professional Revolutionary)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식인들 이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적 사회주의 지식인들이었는데. 노동자, 농민으로부터 이걸 충원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변화는 바로 레닌이 죽기 직전에 이 필요성을 감지하거든요, 정말 혁명사를 보면 레닌은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변화를 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감각적으로 포착을 하면서 따라가는데. 자기네 당(러시아 사회민주당 RSDLP)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으로 부터의 충원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RSDLP의 50%이상을 대중들로 채우도록 당을 개조하지 않으면은 이 당은 관료화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남기거든요. 물론 그렇게 안 됩니다, 안됐고.

#### ▲당과 대중 - 그람시

그람시 같은 경우에도 크게 유사한 행위를 옥중수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대중을 당으로 끌어들이야 되는데... 그람시의 경우에는 이 개념이 유기적 지식인 개념으로 나타나거든요. Organic - 그러니까 대중들로부터 당지식인들을 육성해서 아래로부터 올라와서 당을 구성하는 이 지식인을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부르죠. 노동자, 보통 노동자 출신, 한국으로 치면 박노해라거나 백무산 이런 사람들이 유기적 지식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고 이 과정을 잘하려면 여기서 진지전을 해야 되고,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운동을 전개해야 된다. 그게 그람시의 논리였죠.

#### ▲당의 세속화 - 대중화

근데 이런 노동자 농민으로 주로 구성되는 (다른 대중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이제 당들로 인입되게 되는 것. 인입되는 방식이 이후에는 더 시컬러(secular)하게 돌아가는, 세속적인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당비만 납입하면 그냥 다 당원이 되는 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당비를 납입하면 당원이 되는. 레닌에게는 이걸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레닌의 당원 개념은 당비를 납부한다라는 첫 번째 조건 외에 당 기관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었거든요. 당 기관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당비를 내도 당원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라지는 거죠. 당 기관에서 일하느냐 마느냐와는 별개로 당비만 납부하면 다 당원으로 되는 거고 투표권을 갖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이게 대중화죠.

#### ▲대중화(mass)의 움직임들

대중화(mass)의 움직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대중화가 사실은 파시즘하고 연결되는 거고... 철학적으로 보면 발터 벤야민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의 철학 속에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유럽 당들의 대중당으로의 변신. 전위는 전위인데 대중적 전위. 전위적 전위가 아닌 대중적 전위로 바뀌는 그런 거죠. 파시즘은 대중운동을 기반으로 하였고.. 벤야민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철학적 이론, 특히 예술 이론을 대중의 출현에 보고 있거든요. 예술 작품의 아우라가 벗겨지는 그 상황. 즉 원본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지고 기술 복제가 가능해진 시대의 이 예술 작품은 원래 원본주의, 오리지날을 추구할 때의 이런 작품은 엘리트적 움직임이죠. 엘리트가 소유하고, 엘리트만이 향유하고 그러는 것인데 바로 복제물을 통해서 대중이 예술작품을 향유하고 소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술 자체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때 이 대중, 대중이라고 하는게 이제 화두로 등장하는 것이죠. 이제 계급 구성이 대중 노동자로 되는 것인데... mass worker - 지금 이게 인제 주권으로 보면 제국주의이고, 여기서 이제 의사제국주의가 나타난다. 그리고는 우리가 얘기하는 제국은 그 다음 단계에 있다.

#### ▲의사제국주의

의사제국주의 시기는 간제국주의에서 제국으로의 이행기에 나타나는 준 그 막간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냉전 같은 것. 냉전 같은걸 보면, 냉전은 1,2차 세계대전의 연속이죠, 일단. 연속인데... 연속이라 하더라도 다른 연속이죠. 우선 열전의 유형이 사라졌다는 것도 그러하려니와 1945년 2차 세계대전에 종식과 더불어서 1,2차 세계대전을 규정했던 식민화라고 하는 현상이 쇠퇴, 후퇴하기 시작하죠. 오히려 식민화가 아니라 탈식민화가 나타나잖아요. post-colonial이 이루어지는 거죠. 탈식민화가 전개되는데, 탈식민화과정이라고 하는게 이 제국주의적인 것의 의사화, 그러니까 일종의 인제... 의사라고 하면은 사이비이고 하지만 그럴 듯 한건 갖춰야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화가 나타나는 건데.

#### ▲의사제국주의 - 미국의 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두 축(미국과 소련) 중에 하나로서 통치를 해나가는 방식을 보면, 영국이라거나 예전에 스페인이라거나 그전에 네덜란드 - 스페인이 한 15~16세기, 네덜란드가 17~8세기, 영국이 18~9세기 이럴 때 인제 일종의 전성기를 구사하잖아요. 영국은 20세기 들어오면서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완전히 고꾸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네덜란드나 스페인이라거나 영국과 같은 나라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은 내외부, 외부의 자기 속으로의 포섭이었죠. 그러니까 식민영토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이게 두 단계가 있지만, colonialism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imperialism부를 수 있는 두 단계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외부를 끌어들이는 것이었죠. 근데 미국은 45년에 승전을 했음에도 자기가 승전한 나라를 식민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방을 시키고 원조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가서 자원을 가져오는게 아니라 돈을 뿌리는 거죠. 유럽에 대해서 미국이 취한 원조정책은 마셜정책(Marshall Plan)으로 나타났죠. 그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 그 승전을 통해서 거둔 성과들을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한국에도 이승만 정권당시에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습니까. 물론 돈을 뿌리지는 않았고 물품을 많이 뿌렸죠. 그래서 아마 우리

형들은 전쟁기, 그때의 경험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한 50~60년대 기업들을 간간히 얘기할 때 보면 이태리타월 있잖아요? 이태리타월하고 비누, 이런걸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몰고 가면서 확 떨어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시골 사람들, 애들이 달려가가지고 막 경쟁적으로 그걸 집는데, 비누가 하얗잖아요. 맛이 이상하잖나. 그니까 이걸 먹어 볼라고 어떻게든, 삶아보고 이런 식의 쇼를 했다는 얘기를 재밌게 추억담으로 얘기한걸 들었는데... 그런 식의 살포식 원조를 하고, 실제로 차관 형식의 원조는 박정희 정권 들어오면은 하지만...

#### ▲의사제국주의의 방식 - 냉전

그래서 원조를 해주거나 이걸로 하여금 지금 아까 여기 지웠던 nation building 있죠? nation building이라고 하는 그 방식을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쨌건 여기서 자립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 자립된 국가를 한미 동맹관계라거나 경제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경제에 장착되어 있는 그런 경제단위로 바꾸는 것이죠. 이걸 식민화 하는게 아니고,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제국주의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본래적 제국주의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적 특성을 유지하는 의사제국주의였죠. 그래서 의사제국주의가 전쟁을 하는 방식이 냉전이었던 거입니다. 전쟁 안하는, 전쟁 없는 전쟁이죠. 그니까 마르코스가 사파티스타의 부사령관이었죠. 지금은 부사령관 딱지를 뗐지만... 마르코스가 “제4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글에서 신자유주의를 제4차 세계대전으로 부릅니다. 금융 폭탄을 앞장세운 네 번째의 세계대전으로 부르는데... 그럼 ‘세 번째 대전은 언제 일어났었지’하는 의문을 갖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냉전이죠. 제3차 세계대전이 수십 년 동안 계속 된 겁니다. 1945년부터 1991년까지 3차 세계대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차 세계대전은 장기전의 형태를 띠었고, 내부적인 국지적 열전을 갖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 대표적 사례죠. 내부적인 국지적 열전을 갖는 냉전 형태로 전개가 되었는데... 이 post가 붙는 식민화, 탈식민화의 과정이 전개되어 가게 됩니다.

#### ▲mass worker - 민족해방투쟁 - 의사제국주의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상 이 mass worker부터 또 무언가로의 변화에 의해서 추동된 것은 아닐까하는 의문을 우리가 한번 품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게, 우선... 거기에 적어 놓은 것처럼 제국주의의 첫 번째 경계가 17년 전문 노동자 해계모니와 사회주의 혁명이라면, 두 번째 제국주의의 경계 - 이게 45년 전후한 민족해방투쟁 이었다는 것이죠. 민족해방투쟁이 바로 인제 이 제국주의 두 번째 경계가 되면서 의사제국주의로의 전환을 유도를 했는데, 그러면 1950년 한국전쟁하고 1965년에 시작된 베트남전쟁을 보면, 전자는 3년을 끌었고 후자는 10년을 끌었습니다. 전자에선 뚜렷한 대리전의 양상이 나타났죠. 소련 제국주의와 미국 제국주의, 두 제국주의적 경향들의 대리전의 양상을 띠면서 전개되었고, 후자 역시 비슷한 꼴로 나타났어요. 근데 한국전쟁에서는 승자가 없었습니다. 승패가 나질 않고, 지금 우리가 휴전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직 전쟁이 쉬고 있는 것이지 끝난게 아니죠. 지금 현재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게 지금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과 여러 가지 그것들의 과제로 주어져 있는 건데...

#### ▲베트남전쟁 - 미국의 첫 패배

한국전쟁이 승패가 안 갈라지고 나타난 반면 베트남전쟁에서는 미국이 철수를 해버리고 베트남이 통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패배가 뚜렷하게 나타난 아주 전례 없는 사건이었죠. 이거는 미국인들한테는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미국이 처음 패한 것이거든요. 역사상 대외전에서, 열전 형태로든 유사전쟁 형태로든 최초로 패배한 사례거든요. 독립전쟁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죠.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전쟁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겼었는데 이게 인제 첫 패배였고, 이게 미국 사람들에게 준 충격은 엄청났던 것이죠. 그럼 미국이 최초로 공격당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했던게 41년 말인가요. 미국으로서는 이때가 본토에 해외로부터 폭탄이 날아온 처음 침략의 경험이죠. 근데 베트남전은 자기네들이 침략을 했는데 패배한 경험이라서 저거하고는 좀 달라요. 두 번째로 이건 의문에 쌓여있지만 2001년이죠. 2001년에 만약에 정말로 라덴이라거나 탈레반이라거나 이런 쪽에 뭔가 그 어떤 2001년, 9.11의 행위 주체성이 입증이 된다면, 입증이 안 되고 있지만... 어쨌건 이거는 공격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때 9.11을 제2의 진주만 사건이라고 언론에서 막 떠들었던 건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두 번의 공격을 당한 사례, 베트남전은 자기가 공격했어요. 그러나 패배했습니다.

#### ▲비대칭전쟁

근데 65년이라고 하는 이 사건. 이 사건이 미국이 가장 제국주의적인 방식으로 움직였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군대를 직접 막 주둔시키고, 정글을 갖다가 초토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전쟁을 치뤘던, 그야말로 제국주의적인 방법의 전쟁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패배를 하죠. 이 패배의 원인은 어디서 제공 되었는가. 이게 문젠데요. 거대한 나라,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엄청난 병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쨌서 게릴라적인 농민군들한테 패배하게 되느냐. 이게 이제 비대칭전쟁에서 강자가 승리하는게 아니라는 거죠.

####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의 위대함은 전쟁의 결정요소, 전쟁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를 화력에 의해서 보지 않았다는 점. 그 이전 전쟁 이론가들은 전부 화력과 병력의 숫자라거나 테크닉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크고 잘 조직된, 기술적으로 잘 조직된 군대가 승리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클라우제비츠는 그렇게 보질 않고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전선에서 두 부분이 붙는데 양쪽 부분이 다 시민사회에서 규정되는 부분이라고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에서 병사를 대리로 파견한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일종의 재현부분인데, 전쟁에서 대리로 하는 부분 인데, 여기(시민사회)에서의 지원, 우선 병사자체가 시민들의 아들딸이고 - 몸End아리 자체가 시민사회에서 보급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기도 이쪽(시민사회) 공장에서 보급되는 거고, 전부 다 여기서 오는 거다. 그리고 결정적인 요인은 사기라고 봤어요. 사기도 여기(시민사회)서 공급되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전쟁의 의욕을 잃으면 아무리 강하게 조직된 군대도 패한다. 이게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레닌도 클라우제비츠를 굉장히 열심히 읽었습니다. 자기의 혁명 이론의 교재처럼 사용하고 그랬었는데... 요 부분인데...

### ▲미국반전운동과 68혁명

65년에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외부로는 배통이 인제 막 있었겠지만은, 내부에서는 반전 운동이 있었거든요. 이 반전운동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1975년, 제가 대학에 입학한 해인데, 이제는 거의 절정기로 이루게 되죠. 왜냐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돌아오는 상황이었고, 지옥의 묵시록이나 이런 영화 보면은 그 이 전쟁에 대한 아주 어두운 그림자들이 묘사되어 있잖아요. 최근에도 미국 병사들의 정신질환이 엄청나게 미국으로 돌아와서 정신 병원에 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요. 한겨레신문에 크게 분석기사가 나오고 그러던데... 이 전쟁에서 겪는 상처들, 정신적 공황들이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말하기 힘든 정도인거 같아요. 특히 정당성이 부족한 전쟁에서 병사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 때의 자책감, 이런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전운동이 고조되었고 이 반전운동이 고조된 시기, 이게 65년부터 인데 이로부터 (75년 사이에) 3년 뒤에는 68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68혁명의 파급효과가 지구를 가득 감쌌죠. 그냥. 완전히 감싸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동부에서 시작해가지고 프랑스로 이어지고 스페인이라거나 독일, 이탈리아 심지어 영국에까지 남미에서 칠레 같은데서 아옌데가 집권을 하고 이런 식의 상황들이 전지구적인 사건으로 68혁명이 전개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79년까지 가거든요. 79년 4월까지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인제 10여년에 걸친 방대한 혁명의 시기가 베트남전쟁을 에워싸고 있었던 거죠. 그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반전 시민 운동만 고려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 자체가 68혁명에 완전히 포위되었단 말이죠. 포위되어서 병사들이 휴가를 가면 듣는게 욕먹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빨리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을테니까... 계속 사기가 저하되는 거죠.

저도 80년대 말에 비슷한 체험을 했었는데, 90년대 초죠. 그러니까 뭔가 혁명운동을 해나가는데 89년 4월에 천안문 시위 이후에는 조직원들이 빠져나가서 뭔가 막 돈을 벌어들여주고 한다면, 팜플렛을 나눠준다거나 그러면은 욕을 먹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너 아직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나가서 막 설득을 하고 그래야할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한가득 안고 돌아와서 이거 어떻게 봐야하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보고서에다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식이 되니까, 정말 이거하고 논쟁하기도 힘이 들고 논리를 세우려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시간은 없고 이런 상황이 되고,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힘이 축 빠지는 거예요. 그니까 밤 되면 술 마시고 싶어지고, 막 이런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정말로 이게 사기저하, 당원, 당 조직 활동가들의 사기가 저하되니까 결국 전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기에 빠져요...

### ▲비대칭전쟁 - 약한 쪽의 승리

그니까 비대칭전쟁에서는 대체로 이전까지 약한 쪽이 승리해 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물론 미국의 후원을 탈레반들이 받기는 했지만, 소련하고 맞서 싸운 거잖아요. 이게 뭐 보통 군대니까? 아프가니스탄은 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잖아요. 그렇지만 탈레반이 이기죠. 이런 이제 사례들... 이거는 전쟁이라고 하는게 결코 물리적인 현상만은 아니라는 건데요.

지금 이 지점. 그니까 민족 해방운동이 의사제국주의에 대한, 제국주의에 대한 한계를 부여했는데, 68을 전후한 이 상황은 의사제국주의에 결정적 한계를 부여하면서, 어떤 새로운 것으로의 자기 재구성을 재촉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 ◆2교시: 제국으로의 이행에서의 계급구성의 변화

##### ▲social worker

다시 주체 문제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우리가 mass worker로부터 어떤 변화들이 인제 있어왔는가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계급 구성의 양상은 노동자들의 사회화입니다. social worker에... 그런데 mass 단순히, 단순조립공 식으로 양화된 대중노동자가 아니라 사회를 무대로 연결되어 있는 노동자. 그니까 공장을, 공장이라는 무대가 대중을 생산하는 공간이죠. 사실상. 공장이라고 하는 게 거대한 대중, 일종의 군대. 우리가 울산 현대 자동차에서 파업할 때에 tv에서 파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오토바이가 그냥 막 그 엄청나게 끝이 안보이게 짹 행진하잖아요. 몇 줄을 짹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군대죠. 엄청난 군대가 그냥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대중이죠. 일사분란하게 조직되어 있는 다량의 사람들. 그래서 대중이 이제 움직이는 건데... 공장이 바로 그런 일사분란한 대중을 생산해 내는, 상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그런 대중을 생산해 내는 장소이기도 한 거죠. 그니까 맑스는 항상 자본주의를 분석할 때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가치생산일 뿐만 아니라 주체의 생산이다. 그니까 자본은 1권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은 한편에서는 ‘부의 축적, 다른 한편에서는 프롤레타리아의 축적’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 가닥으로 본다는 것이죠. 공장에서 상품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런 대중들이 쪽 생산되 나오는 것이죠.

##### ▲전 사회적인 네트워크로서의 공장

근데 이 공장이 만약에 이런 국지화된 지역에 흩어져있는 공장으로 되지 않고, 전 사회적인 네트워크로서의 공장으로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국제적인 공장이 오히려 사회 평면의 외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이것의 마디를 구성하는 이런 식으로 공장들이 있다면... 근데 이 공장은 - 이거는 때로는 사무실하고 요건 때로는 학교이기도 하고 저건 병원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있죠? 그래서 공장과 학교의 구분이 사라질 때, 그걸 우리는 인제... 학산복합체라고... 우리가 미국을 부를 때 군산복합체라고 부르

기도 하잖아요. 군산복합체처럼 어떤 여기 뭐 학이라고 제가 붙였지만 intelligence라고 해도 좋겠어요. 지성이라고 봐도 좋겠는데 우리가 학교라고 붙였으니까... 지성적인 부분하고 산업하고의 연결 관계. 이 복합체(complex)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 건가하는 문제죠. 이게 지금 이 social worker의 삶의 현장에서는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현장(site)이라는 말을 썼는데, 80년대에 '현장으로 가자' 그러면 공장으로 가자는 뜻이었습니다. 난 그게 참 시간이 흐르면서 참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들인데 '현장이라고 하면은 왜 그게 공장이어야만 하는 것이지?'하는 의문이 남았는데, 이 공장으로서의 현장개념을 제일 열심히 주장해왔던 사람들이 NL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PD의 무림파였었죠. 그니까 음... 공장노동자가 현장노동자이고 현장이 이제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브루노 라투르(Bruno Latour) 얘기 제가 했습니까? 예... 브루노 라투르가 현장 개념을 바꿨잖아요. 인류학 연구를 아프리카에 가서 했는데, 왜 아프리카만이 인류학적 조사의 현장에 드느냐하는 문제죠. 제 말로 바꿔놓은 겁니다, 제 사고법으로... 현장은 오히려 서구의 바로 그 어떤 실험실일 수 있지 않느냐, 현장 개념을 바꾼 거죠, 이 사람으로서는... 그니까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90년대 후반까지도 계속 이제 이런 새로운 담론들의 부상과정에서 전통적인 산업 노동운동을 따르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지도 않으면서 먹물 같은 것들이 떠들기만 한다, 이런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먹물이라고 부르는 거는 바로 다중성으로 지성(intelligence) 개념이죠. 지성적 영역이 비현장으로 취급이 됐던 거죠. 현장 바깥에, 현장 외부 영역으로 취급이 됐단 말이죠. 요즘은 그런 얘기가 많이 사라져 버렸는데, 현장이라는 게 말하자면 확장되는, 끊임없이 확장되어서... 바로 이제 이 현장 자체가 social한 것, social 자체가 현장으로 바뀌어 버리는... factory가 아니고...

#### ▲social worker - global social

우리가 이것을 자세히 얘기하려면 왜 이 유형이 나타나고 이 유형이 나타나는 역사적 배경들을 다 사실은 살펴봐야하는데, 그러기엔 좀 힘이 드니까 시간적으로... 일단 이(social)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공장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그 사회적 평면의 대두가 나타난다는 것. 근데 네그리도 이 social을 설명할 때에는 처음 60년대나 70년대 초반 쯤을 보면 내셔널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글로벌하게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셔널한 평면에서의 social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social worker라는 말은 계속 유지되지만 social이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글로벌에 의해서 영향 받는가를 계속 이제 이야기하죠. social worker의 개념을 버리지는 않았지만 이 social은 national social이 아니고 global social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차원에서의 social. 사회라고 하는 게 글로벌한 전 지구적 표면에서... 이건 깊이의 차원에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질적 측면 모두에서. 우리가 아까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 이런 걸 다 언급했던 것처럼. 지표면의 양적 크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보편적인, 삶의 보편적인 영역이 social 평면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문화의 구분 같은 게 인위적이게 되는 거죠. 인위적으로 구분하면 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경제가 정치고, 정치가 경제고, 문화가 경제고 이렇게 되잖아요. 문화가 경제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프란츠 카프카였거든요. 매스 미디어의 등장... 그래서 문화가 산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그 현실. 뭐 이론적으로는 맑스가 이미 오래전에 얘기한 것이죠. 과학과 기술의 생산에 응용. 이건 바로 지



성의 산업화를 이야기 한 거죠. 그래서 문화가 경제가 되고, 정치가 문화가 되고 이런 막 뒤섞임의 현상들이 이 평면(social worker)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렇게 된 거를 누가, 어떻게 주권화 시키냐예요. 누가 이 위에 설 것인가하는 문제죠. 이것들(social worker)의 위. 수페르(super)개념. 수베행(souverainet) 혹은 소버린티(sovareignty). 요거를 갖다가 누가 어떻게 부과할거냐 하는 문제에서 제국이라고 하는 상상적, 상상력이 동원되는 거죠.

#### ▲협정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 개념을 상상된 공동체로 이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국 자체를 하나의 상상의 산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상이란게 공상적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이거(social worker)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거를 일자의 지배하에 포섭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하는 게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이거(sovareignty)는 뭐 어떤 중앙 행정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하고 계획을 짜서 되는 건 아니겠쥬. 여러 가지 요기에서 이걸(social worker)다룰 수 있는 국지적인 그 관할 방식들, 그게 상품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 형태일 수도 있고, 군대의 편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다중>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부르주아지들의 군사 전략들이 바로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변동돼왔는가를 짚서술하거든요. 이게 여러 영역에서 각개에 약진되면서 이거(social worker)를 포획할 수 있는 버블들이 계속 뽁뽁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 사이에 협정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이 협정이 나타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제국을 그렸을 때 이게(맨 밑) representaion 영역이고, (중간) articulation 영역이고, 이게(맨 위) unification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정이라는 것은 여기서(articulation) 사실 다 벌어지거든요. articulate 한다는건 마디 결합을 한다는 뜻인데, 마디 결합을 하려면 서로 협상을 해야쥬.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내가 얼마 낼게, 니가 얼마 내라'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할테니, 니가 어느 정도 노력해라' 이런 식의 협상. 이것들이 인제 곤충들의 지절들처럼 마디 결합을 해서 하나 하나 올라가면서 구축이 되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 ▲핵-unification

그랬을 때에 예컨대 지금 우리는 음... 비유적으로는 핵-unification과 화폐-articulation와 정보-representaion.. 요 세 가지, 지난번에 요 얘기는 안했는데, 요 구조가 정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보, 주로 언어적인 활동으로서의 재현(representaion)과정이 전개가 되고 여기에서 협정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가 뭐를 얼마만큼 갖게 될 것인가하는 문제이쥬. 그래서 지역적인 자본들의 연합들이 전개가 되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 핵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된다는, 이건(unification) 뭐 군주 중에 군주쥬, 핵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지금 핵무기를 통해서 그... 지구를 7번을 부순 다음에 반을 더 부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핵이 나오기 전에는 이 지구라고 하는 거는 자연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쥬. 어쨌건 인간은 자연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 존재였지만, 핵은 지구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절멸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고, 이게 인류가 축적한 힘이기도 한 거쥬. 그럴 때에 이 핵은 전면에 나서지 않는 배후의 군주로 옥좌에 앉아 있쥬. 앉아서... 우리의 사유를 무조건 제약합니다. 예컨대 혁명이라고 할 때 핵이 없었을 시대에 레닌은 혁명을 했는데 야 우리가 그... 그때면 말 타면 싸우는 군

대들 이었잖아요. 그런 '뭐 기마부대를 어떻게 편성하고 소총부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디를 공격하면 되겠어.' 할 때 이 전체를 절멸 할 수 있는 무기는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 쪽도 비슷한 식으로 조금 더 강한 걸로 맞싸워야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형태의 무장적 저항도, 만약에 마음만 먹으면 한방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니까 무장투쟁, 무장봉기라고 하는 개념이 가졌던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실재적 이미지, 혁명의 실재적 수단으로서의 무장이라고 하는게 지금은 뭐라그러죠? 제스처. 만약에 그걸 실제로 믿는다면 코메디, 돈키오테가 되는거죠. 야, 우리가 요것가지고 싸워가지고, 이 무력으로 전 무력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약간 이제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회화화 되고, 시대착오가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장이라고 하는게 아주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니까 68년 전후에서 미국에서 인제 블랙팬서(Black Panthers)당이 움직일 때에 그 사람들이 미국 의회에 난입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봤을 때 난입이죠. 이 사람들은 진입을 했겠지... 진입을 했는데 총을 메고 들어갔어요. 총을 메고 들어갔는데, 총을 거꾸로 댔습니다. 앞으로 쉽게 탁 낼 수 있게 한 것도 아니고, 거꾸로 매고 들어갔어요. 근데 어쨌건 총을 메고 들어오니까 의사당을 지키고 있던 경찰 병력이 사살을 해가지고 대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이라고 하는게 갖는 의미인데, 블랙팬서당은 이게 아이러니를 한 것이거든요. 일종의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건데... 쇼를 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이제는... 총을 가지고 쇼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명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단 요거는 메타포의 방식이 이전의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대응적 방식으로 메타포를 하니까, 어쨌든 니가 총 들었지 않느냐. 미국의 영화를 보면은 호주머니에서 뭘 꺼낼려고 하는데 쏘버리는 거, 항복하려고 하는데 제스처에도 쏘는데.. 어쨌건 그 제스처 자체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평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컨대, 무장이라고 하는 거, 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져야만 하는 조건을 이제(unification) 제공한다는 거죠. 핵으로 상징되는 거대하게 집적된 폭력 시스템이 이제... 폭력 자체에 대한 재개념화를 요구하게 되는 건데요.

#### ▲제국 시스템

여하튼 그건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서 - 정보가 화폐에게 넘기고 화폐가 핵에 넘기는 방식으로 요 social worker가 통제되어 가는 요 시스템. 이게 지금의 제국 시스템으로 나타난다... 여기 뭐 미국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읽어보면 될 거 같고요, 예컨대 3페이지에 그림이 있잖아요? 정남영 선생님이 그려놓은 걸 이용을 하는 건데... 근대, 탈근대로의 이행의 그 표징들을 보면은... 근대적 주권으로서의 제국주의하고 탈근대적 주권으로서의 제국을 비교를 해보면은... 음... 이 전자는 민중이라고 하는 주체성을 생산해냈고, 후자는 다중이라고 하는 걸 생산한다, 이거는 차차 우리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민중은 어쨌든 근대 정권을 떠받치는 주체성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변증법적인 대립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양자가 삶과 주권의 물리적 대립관계에 있죠? 우리가 막 아까 좀 전에 무장해서 대립하는 그런 방식처럼... 이 요소와 이 요소가 대립하고 다시 이것이 새로운 국가 시스템의 구축으로 종합되는, 그러한 방식의 매커니즘이 근대적 주권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면... 탈근대적인 주권은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social worker) 막 뽀글대는 다양한 힘들 - 이거를 그 나라의 소통제장치들을 통해서 일자의 지배로 다시 모두어내는 혼종성의 관리라고 하는... 더 넓은 의미에서의 관료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죠. 관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대립보다는 관리. 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근대적 주권은 장소를 갖고 있다 - 이거는 local도 그렇고 national도 그렇고, national은 local보다는 공간적이지만 제국에 비하면 장소적이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있습니다. 영토라고 하는 것이... 근대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장소적이기보다는 순수공간적인... 만약에 화성인이 나타나면은 다르겠죠. 그러면 지구가 다시 장소화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공상, 상상적인 것에 머무르는 한에서 지구차원에서 보면은 글로벌하기 때문에 장소성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간, 공간적이다. 들뢰즈는 물론 공간도 두 가지로 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하는 이런 표상 가능한 공간(extensio)형태와는 다른 잠재적 공간(spatium)형태를 설정해서 거기에 한글본에서는 공-간. 하이픈 친 공간이라는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spatium - 라틴어였던지 하여튼 다른 이름을 써요. 그... 우리가 보통 공간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써서 그 공간(spatium)을 묘사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물리적 가시적 영역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 잠재성의 장소에서, 잠재성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그 공간을 이야기 하는데요.

#### ▲안타고니즘 - contradiction

그 다음에 위기와 타락의 관계. 위기는 바로 변증법적 대립의 안타고니즘(antagonism). 이때는 안타고니즘이라고 부르지 않고 contradiction이라고 부르죠. contra는 맞선다는 거고, dict라고 하는 건 말한다라는 건데... 말로 맞선다는 거죠, 엄밀히 보면. 그니까 변증법적인 모순은 사실은 가상적이거든요. 말로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해소될 수 있는, 종합될 수 있는 방식의 대립입니다. 말이 서로 이제 대립하는 것이예요. 그니까 안타고니즘은 그보다 훨씬 더 리얼한 것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왜 위기는 바로 그 contradiction적 방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위기가 움직이는 건데, 여기 타락이라고 쓴 거는 corruption을 지금 타락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부패라고 책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부패라는 것에 더 가깝죠, corrupt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주권이 이걸(social worker)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는 역동성, 유동성이잖아요? 이걸 막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관리하는 게 고정되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계속 파동을 치는 거죠. 그래서 잠시도 이게 가만히 있지 않는... 고정시키는 방법이 운동으로 나타내는 거죠. 요 딜레마. 그러니까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운동해야하고, 자기가 발전해 나가는 방법이 자기를 해체시키는 것이어야 되는... 패러독스(para-dox). 어떤 의견인데, 어떤 방향인데... 이게 두 개로 간다는 말이죠. 두 쪽으로 갈라진 의견. 그래서 제국의 발전은 그 내부로 제국에 대한 자기비판, 자기성찰, 자기해체를 끊임없이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체야 말로 제국의 동력인 것이죠. 그 해체를 지금 부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부패는 나쁘다하는 그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붕괴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시스템 - 이게 제국이라는 거죠.

요런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지금 맨 마지막에 제국에 대한 투쟁들은 우리가 음... 여기까

지의 투쟁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아직 소개를 덜 했는데, 다음 시간에... 생산의 문제를 다루면서 투쟁의 문제를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